

2020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시·동화 당선자 인터뷰

# “당선은 자격증일 뿐... 초심처럼 글 쓸 것”

이한솔 “기쁨과 두려움 사이에서 매일매일 줄타는 느낌”  
 선혜경 “시는 내 운명... 열다섯살 무렵 시 매력에 빠졌다”  
 장나현 “동심은 영혼의 고향... 울림있는 작품 창작하겠다”

문학청년들에게 절박한 무언가를 꼽으라면 대부분 신춘문예 당선일 것 같다. 신춘문예는 문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통과와례와 같다.

2020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한 작가들의 열기도 예년처럼 뜨거웠다. 시 1237편, 소설 153편, 동화 128편 등 응모작은 모두 1518편이었다. 예년 수준의 응모 현황을 보인 가운데 이한솔 씨의 '전자레인저' (소설), 선혜경 씨의 '빛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나는지' (시), 장나현 씨의 '틀니를 찾아서' (동화)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최근 열린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당선 작가들과 인터뷰를 했다.

이한솔 작가는 소감이 어떠한지 물음에 “당선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며 “동시에 ‘진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마냥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문학은 기쁜 감정만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매일매일 외출 타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혜경 시인은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아 세 번 정도 되물었다고 했다. 그녀는 “부족한 내 시가 신문에 실린다는 생각을 하자 며칠 동안 잠도 편히 못 잤다”며 “내 시에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써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웃었다.

장나현 동화작가는 “호주 여행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흑여 당선이고 본심에 올라간 것 아닌지 물었다”며 “너무 좋아 뛰쳐다다 뛰쳐다다 뛰쳐다다 뛰쳐다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계기로 문학에 입문을 하게 됐을까. 신춘문예 당선까지는 누구에게나 지난한 습작시절이 있기 마련이다. 외롭고 힘든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문학적 성취가 달라진다.

“글을 쓰고 싶다는 결심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김애란 작가의 ‘두근 두근 내 인생’과 은희경 작가의 ‘채의 선물’을 읽었을 때, 똥가 신이 났어요. 계속해서 읽고 싶다는 느낌보다는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는 기분에 더 가까웠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학교에 문예창작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입학할 하게 됐던 거죠.”(이한솔)

“시의 매력에 빠져든 시기가 열다섯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시를 읽다보면 행과연 사이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나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 날의 내 감정에 따라 시가 피부처럼 작 달라붙는 그런 느낌, 어떤 문장은 며칠을 가기도 어떤 문장은 다른 의미로 기억되기도 했죠. 그러다 ‘애는 내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선혜경)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20대를 보냈습니다. 일도 할 수 없었고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거지요. 저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 책을 만났어요. 돈 없고 갈 곳 없는 제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었죠. 마침 도서관의 문예아카데미 회원 모집 공고가 났고 그때부터 글쓰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창작에 입문했다고 해도 바로 눈에 띄는 성취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슬럼프를 겪거나, 흑여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도 든다.

이한솔 작가는 힘들 때면 강아지를 끌어안는다고 했다. “마루라는 갈색 푸들이 사람을 좋아해” 옆에 있어 주지만 해도 위로가 된다고 한다. 작은 몸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실감이 나는 순간”이라며 웃었다.

선혜경 시인은 어떤 시를 써도 마음에 들지 않는 ‘권태기’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재작년에 그런 시기가 왔는데 시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일들을 열심히 했다. 드라마를 배우하기도 하고 뜨개질을 하기도 했다”는 말에서의 도적으로 시를 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권태기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를 쓰는 것만큼 나와 잘 맞는 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장나현 동화작가는 “텍스트에 갇혀 글이 잘 안 온다고 느낄 때는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답했다. 그러면서 “책 위에 낙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으로 머리를 비운다”며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면 글이 써지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머릿속을 텅 비워내고 나면 “다시 좋은 이미지들이 채워지는데 그때 이것을 텍스트로 옮겨놓는다”며 웃었다.



이한솔(소설)



선혜경(시)



장나현(동화)

당선자들은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도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창작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롤 모델이랄까, 흠모하는 작가가 있기 마련이다.

“김애란 작가의 소설을 가장 좋아해요.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잘 포착해 특유의 색깔로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간결하고 재치있는 문장들이 많아서 자주 필사를 하기도 하구요. 특히 ‘칼자국’에서 주인공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사과를 씹아먹는 장면이 있는데 강렬하고 인상깊은 장면이었죠.”(이한솔)

“박연준 시인의 ‘아버지는 나를 체제, 하고 불렀다’, ‘베누스 푸디카’를 좋아한다. 시인 특유의 감성이 녹아있는 문구를 좋아하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어떤

시를 읽어도 피부에 작 감기거든요.”(선혜경)

“순천 정채봉 문학관 벽면에 새겨진 문구를 보고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흔히들 동심을 아이 마음으로만 말하나 나는 한 걸음 나아가 영혼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동심이 영혼의 고향이라는 표현처럼 저 또한 동심을 다해 글을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지요.”

세 신인작가는 이제 문학이라는 길고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섰다. 말 그대로 신춘문에 당선은 창작의 길을 가도 된다는 ‘자격증’과 같은 의미일 뿐이다. 당선보다 힘든 게 이후의 과정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의 문학인생이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2020 신춘문예 당선 시집’ 출간

### 광주일보 당선작 등 실려

2020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선혜경 시인의 시 ‘빛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나는지’를 비롯해 올해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시집이 출간됐다.

문학세계사는 국내 주요 일간지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작과 수상자들의 신작 시를 묶은 ‘2020 신춘문예 당선시집’을 출간했다. 지역 일간지로는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 매일신문, 국제신문 당선 작품이 포함됐다.

1990년부터 30년간 문학세계사에서 출간된 ‘신춘문예 당선시집’은 시인 지망



생들은 물론 평론가를 비롯 문단 관계자, 시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당선시집에는 중앙과 지방 일간지 신춘문에 당선작과 함께 신작 시 5편씩이 실렸으며, 시조 부문도 포함했다. 수상자 약력과 수상 소감, 심사평도 실려 있어 문단에 갓 얼굴을 내민 신인들의 문학적 역량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현실과 환상의 화해

심은석 초대전, 30일까지 영산강문화관

‘독특한 조형미와 색조를 만나다.’ 조각가 심은석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영산강문화관에서 열린다.

‘Absorpti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심 작가는 남과 여, 정신과 물질, 현실과 초자연 등 세상의 이분법적이고 모순되는 요소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빙의된 여성과 꽃’, ‘애매모호한 정체성’, ‘자연의 영’, ‘색의 숨결’ 등의 작품들은 블루, 그린, 블랙, 레드, 옐로우 등 강렬하고 원색적인 화려함과 선명성과 더불어 어둠을 조형성으로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또 ‘외눈(雙眼)’의 모티프와 기형적인 구체적 형태들은 기괴하면서 그로테스크하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용기’와 ‘흡수’라는 개념으로 소개한다.

심 작가는 “나는 기이하지만 친숙한 형상들을 작품에 담아낸다. 작품은 여러 가지의 비현실적 존재가 드나드는 용기(用器)로써 형태를 드러내어 현실과 환상이 화해한다”고 말했다.

전남대에서 조각을 전공한 심 작가는



‘색의 숨결’

홍익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미술과 심리학의 결합 ‘마음이 그려요’

심리상담 그림 전시회, 31일까지 예술공간 집

미술과 심리학이 결합된, 사회 속 예술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미술심리상담 그림전시회가 열린다.

예술공간 집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마음이 그려요 -관찰이 잘하고 있어’전은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술이 이끌어내는 다양한 소통과 치유의 방식을 보여주는 전시다.

말로써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 청소년, 성인들에게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미술심리상담의 우선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미술심리상담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그림들을 모아 만든 전시이다. 전시는 광주에서 꾸준히 미술심리상담 활동을 이어온 하트세라피 미술심리상담센터의 최선미 소장 기획했다. 최소장은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뒤 영남대 대학원에서 미술치료학으로 석사를, 조선대학교에서 미술심리치료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시작 중에는 자폐를 겪으면서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그려진 그림도 있고, 그림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들도 있다.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언어가 비현



‘공동작품 (부분)’

실적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미처 몰랐던 이들의 시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전문 미술심리상담사들은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돌아본 후 미술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채색 도구나 점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게 이끈다. 일요일과 설날연휴기간은 휴관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